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은행,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양적완화조치 발표

- 일본은행은 5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.1%에서 0.0~0.1%로 전격 인하하는 한편, 자산매입 기금을 창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함.
 -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현재 연 0.1%에서 0.0~0.1% 인하하는 내용의 안건을 참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함.
 -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로써 일본은 기준금리가 4년 3개월 만에 다시 제로수준으로 낮아지게 됨.
 -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5조엔 규모의 자산매입 기금을 창설하고, 현재 30조 엔을 상한선으로 운영 중인 저금리 대출한도를 35조 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.
-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양적완화조치의 배경에 대해 엔화강세 지속,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, 미국의 추가 금융완화책 발표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.
 -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한 것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난 8월 임시정책결정회의에서 발표된 추가 양적완화대책*에도 불구하고 엔화강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데 따른 것이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음.

* 키리위클리 주간포커스 2010. 9. 6자 '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조치 내용 및 시사점' 편 참조

- 실제로 최근 발표된 9월 경제지표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이 다소 둔화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.
- 또한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가 11월에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일본과 미국 간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엔고현상 지속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도 이번 정책결정의 배경이 되고 있음.

(아사히신문, 10/5)